

## 청년희망대화⑥ 군장병 휴가불평등 문제개선 관련 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군장병 휴가 사수 작전 -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청년위·대학생위원회에서는 여섯 번째 ‘청년희망대화’로 7월 4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군장병 휴가불평등 문제개선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 개최 배경은 지난달 23일 이재명 당대표가 강원도 강릉 군부대를 방문하여 “병사 휴가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도록 제도 정비하겠다”고 언급한 후속조치의 자리였다.
-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당대표, 송갑석 최고위원·국방위원,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당 소속 6명\*과 전역장병 및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이 참석하여, 계급과 신분에 따라 복무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휴가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구체적 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 \* 김병주 국방위간사, 전용기 청년위원장, 양소영 대학생위원장, 강선우 대변인, 이상협 정책위 국방전문위원, 이정하 청년정책연구소장
  - \*\* 주강학, 진우성, 김성준 전역장병, 김서영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
- 이재명 당대표는 “입대 예정이거나 입대한 군 장병들이 공평하게 처우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공감한데 이어 “병사휴가보장법 같은 이런 이름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단 한 시간이라도 또는 하루 이틀이라도 ‘손해봤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간담회에서 전역장병들은 아래와 같이 발제하였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는 전역장병들의 제안이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 △공군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진우성 전역장병은, 현역병의 휴가일수가 5일로 계산되는 점을 문제로 삼아 휴식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하였다. △육군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주장혁 전역장병은, 군의 불필요한 행정요소를 과감히 없애고 항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보공백 해소를 위한 획기적 방안을 제시했다. △중사출신이자 현재 병사 복지 개선을 위해 활동 중인 김성준 전역장병은, 현역병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년들이 부당한 처우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차별적 현실을 지적하며 정치권에서 병사들을 위해 적극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

2023. 7. 4.(화)

 **정책위원회 의장 김 민 석**